

그동안 우리는 잿더미에서 출발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날벼락처럼 닥친 외환위기도 남다른 인내와 의지로 잘 극복했다. 많은 한국의 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은 2010년 주요 선진국 모임인 G20의 의장국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맹렬하다.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제2의 외환위기로까지 내몰렸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퍼지는 신종 플루로 인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부가 하는 것처럼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류를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 되는 것일까? 이 책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왜 공공외교가 요구되는지, 국제사회에서 저널리즘 외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의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BBC, CNN, France24, 중국의 CCTV 등 24시간 영어 채널이 왜 주목을 받는지 살펴보자.

연구서  
2009-07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김성해 · 강국진

한국언론재단

값 18,000원



ISBN 978-89-5711-259-5

언론재단  
연구서  
2009-07

#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품격과 매력'을 통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전략의 실마리를 '미디어 공공외교(Media-centered Public Diplomacy)'에서 찾고 있으며, 미디어 공공외교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해 · 강국진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재단  
Korea Press Foundation